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변금선) 129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18卷(1), 2015. 4, pp. 129~161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변금선**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소득계층별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분석한 결과, 소득1분위에 비해 소득4분위와 소득5분위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고용상태와 이직횟수에 있어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셋째, 소득1분위에 비해 소득4분위와 소득5분위의 임금수준이 높고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교육수준이 높고,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시점의 가구 소득계층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하위계층에 속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적 정책이 요구되며, 고용과 교육, 복지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청년 노동시장 성과, 노동시장 이행,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투고일: 2014년 08월 22일, 심사일: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3월 23일

* 본 논문은 제9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tgoldsun@naver.com)

I. 서론

경제성장으로 인해 삶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청년층은 대표적인 '불안세대'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층의 고실업과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증대는 청년들을 노동 취약계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5년 2월 현재 11.1%로 전체 실업률 4.6%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과거에는 취약층에 집중되던 빈곤문제 역시 청년층으로 점차 확대, 심화되고 있다(김수정, 2010; 변금선, 2012).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동에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이행해야 할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에 놓여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고 노동시장 진입이나 구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이병희, 2002; 전재식, 2002; 안주엽·홍서연, 2002; 황여정·백병부, 2008; 정미나·임영식, 2010; 김민경·류지영, 2011; 정지선·이수정·신정철, 2011; 임병인·김성태·김명규, 2012), 가구소득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더라도, 청년 전체가 아니라 대졸자 혹은 고졸자라는 특정한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를 확인한다(성효용·김민경, 2003; 이규용·김용현, 2003). 또한 특정 시점의 취업여부로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조우현, 1995; 채창균·김태기, 2009).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이자 일자리 탐색기인 청년기의 노동 특성, 그리고 고학력화와 과잉스펙으로 인한 임금 경쟁의 심화라는 노동시장 조건을 고려할 때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는 취업여부와 더불어 일자리의 이행, 이동 그리고 임금수준을 통해 다면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임금 경쟁의 심화 속에서 인적자본 변수의 영향력이 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본 수준을 결정하는 원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에서 청년층이 겪는 불안의 크기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청년 개인이 속한 가구의 경제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이행기간, 고용불안정, 임금수준으로 측정하였으며,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가 그들이 속한 원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처한 경제적 불안의 요인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기는 생애단계(life stage)를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눌 때 전 생애의 중간에 위치하며(Furstenberg, Rumbaut & Settersten, 2005), 이 시기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생애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년은 개인이 보유한 자원(주로는 아동기에 부모(가족)로부터 받은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종료, 일자리의 획득, 주거분리, 결혼, 자녀의 출산 등으로 포착되는 성인이행의 과업을 수행해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독립을 경험한다(Shanahan, 2000). 노동시장 성과가 다른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청년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독립된 성인으로의 이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낮은 노동시장 성과로 인해 청년이 겪게 되는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불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후속 세대로 그 어려움이 이전될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청년들이 처하는 노동시장 진입과 성과의 불리함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도되었던 가구소득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청년기는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동시에 독립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가족 자원의 영향이 결정적이므로(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2011), 청년기 이전 시점 가구의 소득이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자료의 한계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의 고용정책, 복지정책의 확대로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회불안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정

책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년층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이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성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위한 사회정책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가 청년이 고3시점에 속했던 원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청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이후 노동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변금선, 201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이후 초기 경력은 노동생애에 상처(scar)로 작용할 수 있으며(이병희, 2002), 청년기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을 늦춰서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Danziger & Ratner, 2010). 특히 최근 청년 노동시장의 높은 고용불안정과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증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 이러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성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일자리의 안정성, 노동의 가격을 반영하는 임금 수준 등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구조 이론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은 청년 개인의 높은 눈높

이라는 의중임금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과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이병희, 2011).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 이론은 내부노동시장이나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Rosenbaum, Kariya, Settersten, & Maier, 1990). 또한 노동시장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청년들이 처한 노동시장 구조가 동일한 양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청년들 사이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자료를 이용해 청년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노동수요 측면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청년 개인의 조건이라는 노동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높다는 것은 빠른 일자리의 획득, 일자리의 지속, 높은 임금 등을 의미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청년의 노동 특성은 잦은 일자리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청년층이 다른 근로연령층에 비해 일자리 경력이 적고, 노동생애의 측면에서 다면적 이행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청년기는 노동생애에 있어서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독립적인 성인 노동자로 발돋움하는 시기이므로 일자리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경력을 형성한다. 특히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은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반영하는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의중임금은 청년이 노동공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양방향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학력화와 취업준비정도의 상향화로 인해 청년구직자가 보상받아야 하는 의중임금이 높아져 취업을 미루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실업기간의 장기화는 청년 구직자의 의중임금을 낮춰 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박천수, 2014).

임금수준은 교육, 기술 수준에 의해 임금수준이 결정된다는 인적자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Becker & Thomes, 1986). 노동시장 성과에 관련된 인적자본 변수는 교육수준, 자격증, 학점, 직업훈련 등이 있는데, 교육수준이 낮거나 자격증이 없고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 인적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과잉스펙은 보다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층의 높은 인적자본 수준은 실제 임금수준을 높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인적자본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을 구직대열의 뒷자리에 서게 만들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변동에서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청년층이 처하는 노

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적자본 수준은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 수준은 인적자본을 산출하는 투입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구소득 혹은 부모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의 경제적 자원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개인의 인적자본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와 아동기 가구소득의 관계는 세대간이동성, 아동기 빈곤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아동기 원가구의 낮은 소득은 자녀가 성장했을 때 경제활동, 임금수준 등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교육수준이라는 인적자본 변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Hill & Duncan, 1987; Corcoran et al., 1992; Solon, 1992; Duncan & Brooks-Gunn, 1997; Duncan et al., 2010). 원가구의 낮은 소득이 청년기의 임금수준이나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원가구 소득이 청년기의 노동시장 참여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불분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청년층의 노동이행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그리고 경력을 위한 일자리 간의 이동이라는 청년층의 노동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빨리 취업을 했고, 청년기에 많은 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높다고 설명할 수 없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더라도 당장 일을 해야 하는 근로동기가 낮으며, 높은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일자리 탐색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실증연구 검토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주로 패널자료(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노동패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 등)를 이용하여 청년의 취업여부, 첫 일자리 이행기간, 임금수준, 대기업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왔다.

청년 취업 혹은 일자리 이행에 대한 연구들은 성별, 교육수준, 취업 준비노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채창균·김태기(2009)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해 2006년 시점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는데, 입학시점 가구소득이나 출신대학의 영향은 크지 않고 어학연수나 자격증 여부 등 취업준비 노력 역

시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병인·김성태·김명규(2012)는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의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를 이용해 2011년 현재 취업여부와 정규직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자인 경우,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인턴경험이 있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고, 해외연수 경험과 자격증 취득 횟수는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시점의 취업여부로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취업을 한 것이 긍정적인 노동시장 성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적조사 된 패널조사의 장점을 활용해 일자리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청년층의 노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하여 이규용·김용현(2003), 김안국·신동준(2007), 박천수(2009), 천영민(2012)은 생존분석을 이용해 졸업 후 첫 일자리 이행기간(미취업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남성의 미취업탈출률이 여성에 비해 낮고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미취업탈출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고용불안정과 관련해서 반정호·김경희·김경희(2005)는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해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 확률이 높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한 경우 일자리 안정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병희(2002)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청년층의 잦은 일자리 이동이 임금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노동시장 초기 경험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의 의존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청년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해외연수와 취업준비노력이 임금수준을 높인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병희, 2002; 이규용·김용현, 2003; 박성재·반정호; 2007).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인적자본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노동특성과 이들이 놓인 일자리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인적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빈곤의 세대 간 이전, 소득이동성과 관련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위정·김왕배, 2007; 이상은, 2008; 최지은·홍기석, 2011),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에 따라 노동시

장 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변금선(2013)의 연구가 있다. 변금선(2013)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17세 시점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의 고용상태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교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청소년기 빈곤은 임금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졸업시점에 따른 경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변수인 취업 준비 노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첫 일자리 이행기간, 고용상태, 이직횟수, 임금수준으로 측정한다. 더불어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인적자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원가구 소득 계층에 따라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가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다. 노동시장 성과는 교육을 마치고 일자리에 진입하는 노동시장 이행(학교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 진입에 걸리는 기간), 현 일자리의 고용안정성(고용상태, 이직횟수), 현 일자리의 임금수준으로 측정한다. 고3시점의 가구소득이 청년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총효과는 교육수준과 취업준비노력을 통한 간접효과와 가구소득의 직접효과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취업준비노력은 소득과 더불어 미관측 능력에 의한 영향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고3시점 가구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총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 KEEP)의 고등학교 3학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¹⁾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전국 6,000명의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 및 담임교사와 학교행정을 표본으로 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2004년) 고등학교(일반계 및 실업계) 3학년 코호트 4,000명이며, 1차부터 9차까지 조사가 완료된 표본은 2,514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 교육을 마친 청년이므로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의 조사완료 사례 중 9차년도(2012년)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재학생을 제외하였다.

나.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케플란-마이어 분석(Kaplan-Meier analysis)과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학교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걸린 기간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의미한다. 이행기간은 200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해 졸업 및 중퇴 이후 첫 일자리의 지속기간에서 졸업 및 중퇴시점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졸업 및 중퇴시점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좌측절단 된 값으로 처리하였으

1) 가구 소득이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결정되므로 고3자료가 아닌 중3자료를 이용해 '중3시점 가구소득-고등학교 진학-대학진학-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중3자료를 사용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간의 자료만 관측되므로 다수의 사례가 노동시장 성과 변수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소득계층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관측기간이 확보되는 고3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고등학교 진학 이전 가구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3시점 가구소득계층별 고등학교 계열 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문계고교인 경우에는 1분위 32.0%, 5분위 9.3%인 반면 일반계고교는 1분위 12.0%, 5분위 24.5%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며, 졸업 및 중퇴 이후 현 시점까지 한 번도 일자리를 가져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우측절단 된다.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형은 우측절단된 사례를 고려하여 미취업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독립변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의 소득5분위로, 기준집단은 소득하위 20%인 1분위로 설정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대학교 재학 시기의 가구소득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2차년도 이후 가구소득 변수에 결측치가 많았고 '원가구 소득-인적자본 수준-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변수 간 인과관계의 방향을 고려해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 변수만을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졸업 및 중퇴 시점 이전까지의 취업준비노력, 졸업 및 중퇴시점 당시 최종 학력을 투입하였다. 취업준비노력은 자격증 취득 유무, 직업훈련 경험 유무, 해외연수 경험 유무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전문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자격증에는 초등학교 정교사, 의사, 공인회계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의 자격증이 포함되며, 직업훈련 기관에는 국가 훈련기관과 사설학원이 포함된다. 한편, 가족배경 변수인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형제 및 자매의 수도 통제하였다.

둘째, 고용불안정 모형의 종속변수는 고용상태와 이직횟수이고, 독립변수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 모형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 5분위이다. 고용상태는 2012년 현재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 비취업으로 구분하였다. 정규직은 정규직 여부를 묻는 문항에 정규직이라고 응답하고, 기간제근로·시간제근로·간접고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였다. 통제변수로 2012년 현재 기준 최종학력, 1차 조사시점인 2004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자격증 유무, 직업훈련 경험 유무, 해외연수 경험 유무와 가족배경 변수, 그리고 졸업시점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졸업 및 중퇴 이후 현시점까지의 기간을 투입하였다. 고용상태는 다항프로빗 모형(Multinomial probit model)을²⁾ 이직횟수는 종속변수가 양수를 갖고 0~2의 값에 분포가 집중되는 Count 변수 자

2) 3개 이상의 선택대안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다항로짓모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IIA 가정(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를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비취업, 정규직, 비정규직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IIA가정을 완화하는 모형으로는 네스티드 로짓모형(Nested logit model)과 다항프로빗모형을 고려할 수 있는데 네스티드 로짓모형의 경우에는 다중선택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므로 다항프로빗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료에 적용할 수 있는 (Poisson regression model)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금모형의 종속변수는 임금과 저임금근로자 여부이다. 임금은 2012년 현재 일자리의 시간당임금을 계산해 로그로 변환하였으며, 저임금근로 여부는 OECD 기준을 따라 중위임금의 2/3 미만 여부로 측정하였다. 임금은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무급종사자인 경우에는 측정할 수 없다. 이 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하여 추정을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청년기는 일자리 탐색 시기라는 점, 그리고 종속변수인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변수에 의해 취업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누락에 편의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표본선택 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1단계 취업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으로 IMR을 계산하고, 이어서 IMR을 포함해 임금수준과 저임금근로자 여부를 추정하는 Heckman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과 Heckman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표본선택모형이 식별되기 위해서는 취업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금수준이나 저임금근로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를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는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 유무, 가구내 소득수준(본인 근로소득 제외),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거주지역의 규모 변수를 1단계에만 투입했다. 2단계 임금결정 모형에는 교육수준, 취업준비노력, 현재 일자리 지속기간 변수만을 투입하였다. 다음 <표 1>은 변수의 속성과 단위이다.

<표 1> 변수 설명

변수		속성 및 단위	
종속 변수	노동이행	첫 일자리 이행기간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걸린 기간
	고용 불안정	고용상태	2012년 현재 고용상태, 비정규직=0, 정규직=1, 미취업=0 정규직=정규직, 계약기간 없음, 시간제 근로 아님, 간접고용 (파견, 용역) 아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님.
		이직횟수	2005~2012년까지 이직횟수
	임금	임금수준	2012년 현재 임금수준, 만원 (모형분석시에는 로그전환)
저임금여부		2012년 현재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1, 이상=0	

변수			속성 및 단위
독립 변수	소득계층	고3시점 소득분위	$\sqrt{\text{가구원수}}$ 로 균등화 한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 1분위(하위20%)=0, 2분위=1, 3분위=2, 4분위=3, 5분위=4
통제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교육수준		첫 일자리 취득시점 혹은 2012년 현재 최종학력 고졸=0, 전문대졸=1, 4년제대졸=2
	취업 준비 노력	해외연수	첫 일자리 취득시점 혹은 2012년 이전 해외연수 경험 있음=1, 없음=0
		자격증	상동, 있음=1, 없음=0
		직업교육훈련	상동, 있음=1, 없음=0
	거주지역		2012년 거주지역 특별시=0, 광역시=1, 시=2, 읍면=3
	혼인상태		2012년 배우자 있음=1, 없음=0
	가구소득		$\sqrt{\text{동거가구원수}}$ 로 균등화 한 2012년 본인의 비근로소득, 배우자소득, 동거부모소득의 합(월평균, 만원)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교육연수(없는 경우 어머니의 교육연수) (연)
	형제, 자매의 수		고등학교 3학년 시점 형제, 자매의 수 (명)
가족구조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족구조 양부모=0, 한부모=1	

IV.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표 2〉는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이다. 첫째,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의 48.7%가 여성이고 51.3%가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계층 별 성별을 살펴보면 소득1분위 집단과 소득2분위 집단은 여성의 비중이 각각 59.2%, 50.43%로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3분위부터 소득5분위는 남성의 비중이 다소 많았다. 둘째, 거주지역은 서울시, 시, 광역시, 읍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분위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셋째, 배우자 유무의 경우 전체의 10.4%가 2012년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의 배우자 있음

비율이 1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5분위가 8.2%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 넷째, 현재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전체의 월평균가구소득은 232만원이었으며, 고3시점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할 때 5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 2분위 순으로 현시점 월평균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를 제외하고 1~4분위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과 현재 가구소득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소득은 청년이 속한 원가구원 모두의 월평균소득을 의미하지만 2012년 가구소득은 부모소득, 본인의 비근로소득, 배우자의 소득만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³⁾

<표 2> 일반적 특성

(%, 명)

구분	고3시점 가구 소득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성별	여성	59.27	50.34	49.51	39.3	41.54	48.68
	남성	40.73	49.66	50.49	60.7	58.46	51.32
거주지역	특별시	10.08	18.97	21.36	19.4	32.82	19.91
	광역시	28.23	26.9	26.21	34.83	26.67	28.42
	시, 군	45.97	42.41	38.83	35.32	36.41	40.26
	읍, 면	15.73	11.72	13.59	10.45	4.1	11.4
배우자유무	있음	86.29	91.03	88.35	90.55	91.79	89.56
	없음	13.71	8.97	11.65	9.45	8.21	10.44
월가구소득(만원)	평균	212.26	188.50	272.30	220.18	292.69	232.22
	se	25.94	17.55	30.78	18.38	27.05	10.75

3) 이러한 불일치는 고3시점 이후 가구소득의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도 있다. 고3시점의 가구소득이 이후 관측되는 기간 동안 변화할 경우 추정이 왜곡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는 7차년도부터 가구의 총소득 변수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부모소득 변수만을 제공하여 가구소득의 변화를 독자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현시점 가구소득과 가구소득 수준을 대리하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등 아동기 가족배경 변수와 취업시점의 가구소득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구조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가구소득 수준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생애소득을 측정하는 도구변수 혹은 대리변수로 활용되며, 한부모 가구는 아동기의 낮은 소득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구분		고3시점 가구 소득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모교육수준(연)	평균	9.19	10.71	11.32	11.83	13.51	11.17
	se	0.19	0.16	0.18	0.18	0.22	0.09
한부모 가구	부모가구	75.4	85.17	89.81	96.52	97.44	87.98
	한부모가구	24.6	14.83	10.19	3.48	2.56	12.02
형제, 자매 수(명)	평균	2.80	2.33	2.43	2.08	1.99	2.35
	se	0.07	0.04	0.05	0.04	0.04	0.02
전체(N)		248	290	206	201	195	1,140

2. 소득계층별 인적자본 수준 및 노동시장 성과 비교

여기서는 교육수준과 취업준비 노력 등의 인적자본 수준과 첫 일자리 이행, 이직횟수, 고용상태, 임금수준 등의 노동시장 성과를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원가구의 소득계층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표 3>은 소득계층별 교육수준과 취업준비 노력 현황이다. 먼저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의 38.3%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며, 34.8%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중 72.1%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청년층의 높은 학력수준을 반영한다. 한편, 이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례는 제외된 것으로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교육수준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이 1분위였던 청년 중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15.3%인 것에 비해 5분위 청년은 63.1%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취업준비 노력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의 62.4%가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분위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직업훈련과 해외연수 경험은 소득계층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의 경우 전체 청년의 21.8%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소득1분위 집단은 그 비중이 17.7%에 불과했다. 해외연수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컸다. 전체 청년의 약 8.0%가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1분위 청년은 그 비중이 3.6%인 반면에 소득5분위 청년은 13.9%로 소득1분위 청년보다 10.3%포인트 더 많이 해외연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소득계층별 교육수준 및 취업준비 노력

(단위: %)

구분	교육수준			취업준비 노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자격증	직업훈련	해외연수	
소득 분위	1분위	43.55	41.13	15.32	62.50	17.74	3.63
	2분위	26.90	37.24	35.86	60.69	21.72	7.59
	3분위	25.73	32.04	42.23	65.05	28.16	9.22
	4분위	20.40	37.31	42.29	63.18	18.41	6.97
	5분위	13.33	23.59	63.08	61.03	24.10	13.85
전체	26.84	34.82	38.33	62.37	21.84	7.98	
N	1,140			1,140			

<표 4>는 소득계층별 일자리 이행기간, 이직횟수, 고용상태를 보여준다. 첫째, 졸업 혹은 중퇴 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은 전체 청년이 평균 6.8개월이었으며, 이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를 이용해 대졸자의 이행기간을 약 7개월로 분석한 천영민(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분위별 이행기간을 살펴보면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짧은 소득계층은 5분위 집단으로 평균 5.5개월만에 첫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행기간이 가장 긴 소득계층은 3분위 집단으로 평균 7.3개월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이직횟수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은 평균 1.3회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2분위 집단이 평균 1.4회로 이직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청년 중 비취업자는 26.5%였으며, 정규직은 50.1%, 비정규직은 23.4%였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소득2분위 집단으로 55.9%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는 50.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소득3분위로 45.2%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4)

4) 한편,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1.9%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33.8%와 유사한 수준이었다(성재민·정성미, 2012).

<표 4> 소득계층별 첫 일자리 이행 기간, 이직횟수, 고용상태

(단위: 개월, 회, %)

구분	첫 일자리 이행기간		이직횟수		고용상태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비정규직	정규직	비취업	
소득 분위	1분위	7.09	0.85	1.36	0.13	23.43	48.95	27.62
	2분위	6.75	0.75	1.43	0.14	19.08	55.83	25.09
	3분위	7.32	0.87	1.21	0.14	27.41	45.18	27.41
	4분위	7.26	0.90	1.24	0.13	23.16	47.37	29.47
	5분위	5.53	0.83	1.09	0.14	26.09	50.54	23.37
전체	6.81	0.38	1.29	0.06	23.42	50.05	26.53	
N	813		763		1,093			

<표 5>는 소득계층별 평균임금과 저임금근로자 여부를 보여준다. 2012년 현재 임금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평균임금을 분석하였다. 전체 청년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3백원이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5분위의 평균임금이 1만2천2백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소득1분위의 평균임금은 9천1백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근로자는 49.1%로 절반 가까이가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소득1분위 집단이었으며, 소득5분위 집단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소득계층별 평균임금 및 저임금근로 여부

(단위: 만원, %)

구분	임금		저임금근로자	
	평균	표준오차		
소득 분위	1분위	0.91	0.05	59.34
	2분위	0.99	0.11	53.42
	3분위	0.96	0.06	51.32
	4분위	1.11	0.13	44.83
	5분위	1.22	0.10	32.24
전체	1.03	0.04	49.06	
N	850		850	

3. 청년층의 소득계층별 노동시장 성과

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첫 일자리 이행기간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2차부터 9차까지(2005년~2012년) 일자리 정보가 확인된 사례를 대상으로 케플란-마이어 분석(Kaplan-Meier analysis)과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6> 이행기간에 따른 취업자의 첫 일자리 취득 소요 기간

(단위: 월,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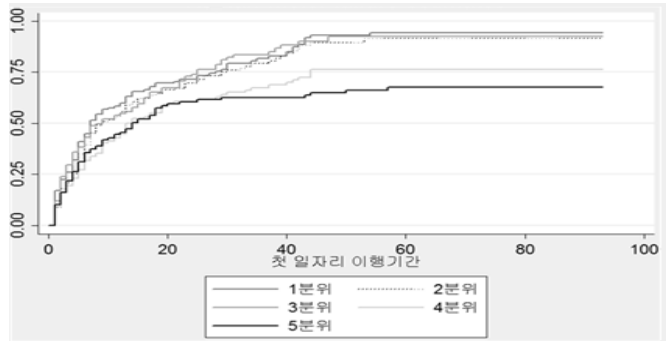
이행 기간(월)	빈도 (event)	백분 율	누적 도수	누적 백분율	이행 기간(월)	빈도 (event)	백분 율	누적 도수	누적 백분율
0	304	37.39	304	37.39					
1	78	9.59	382	46.98	25	8	0.98	749	92.13
2	54	6.64	436	53.62	26	2	0.25	751	92.38
3	28	3.44	464	57.06	27	1	0.12	752	92.50
4	34	4.18	498	61.24	28	4	0.49	756	92.99
5	42	5.17	540	66.41	29	7	0.86	763	93.85
6	30	3.69	570	70.10	30	6	0.74	769	94.59
7	30	3.69	600	73.79	31	1	0.12	770	94.71
8	15	1.85	615	75.64	32	1	0.12	771	94.83
9	20	2.46	635	78.10	33	2	0.25	773	95.08
10	4	0.49	639	78.59	34	3	0.37	776	95.45
11	9	1.11	648	79.70	35	1	0.12	777	95.57
12	9	1.11	657	80.81	37	4	0.49	781	96.06
13	17	2.09	674	82.90	38	2	0.25	783	96.31
14	13	1.60	687	84.50	39	2	0.25	785	96.56
15	6	0.74	693	85.24	40	4	0.49	789	97.05
16	5	0.62	698	85.86	41	4	0.49	793	97.54
17	11	1.35	709	87.21	42	5	0.62	798	98.16
18	7	0.86	716	88.07	43	4	0.49	802	98.65
19	8	0.98	724	89.05	44	6	0.74	808	99.39
20	3	0.37	727	89.42	47	1	0.12	809	99.51
21	3	0.37	730	89.79	50	1	0.12	810	99.63
22	5	0.62	735	90.41	53	1	0.12	811	99.75
23	5	0.62	740	91.03	54	1	0.12	812	99.87
24	1	0.12	741	91.15	57	1	0.12	813	100.00

분석대상 988명 중 2012년 조사시점까지 취업하지 않은 우측절단된 사례는 175명이다. 이행기간에 따른 취업자의 첫 일자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취업을 경험한 청년의 37.4%가 졸업 전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이 졸업 및 중퇴 이후 12개월이 되기 전 첫 일자리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생존분석을 이용해 이행기간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이규용·김용현, 2003; 박천수, 2009).

다음 <표 7>과 [그림 1]은 케플란-마이어 분석(Kaplan-Meier analysis) 결과이다.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이행기간(생존기간)은 25.8개월이었다.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1분위의 평균 이행기간은 18개월이었던 것에 반해 소득5분위의 이행기간은 38개월로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이행기간은 극단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행기간의 전체적인 경향을 확인하려면 누적생존확률(취업하지 않고 미취업자로 남아 있는 누적확률)이 0.5이하로 떨어지는 중위 이행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행기간의 중위수는 11개월이었으며, 소득 상위계층의 이행기간 중위수(4분위와 5분위 14개월)가 소득 하위계층(소득1분위 7개월)의 중위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Log Rank 테스트 결과($\chi^2=25.71$) 이러한 차이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림 1]은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따른 미취업탈출률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것이다. 소득1분위의 미취업탈출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며, 소득5분위는 가장 완만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탐색과 취업준비에 보다 오랜 시간을 투여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 소득계층에 따른 첫 일자리 이행기간 평균 및 중위수 추정(KM 분석)

구분	평균		중위수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1분위	18.13	2.15	7	1.08
2분위	20.90	2.40	9	1.47
3분위	19.05	2.58	9	2.48
4분위	32.42	3.36	14	2.09
5분위	37.66	3.71	14	2.45
전체	25.77	1.34	11	0.92



[그림 1] 소득계층별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따른 미취업탈출률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졸업 및 중퇴 이후 미취업 탈출률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계층별 차이는 소득 최하위계층과 최상위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상위 80~100%)는 소득1분위에 비해 미취업탈출률이 29.2% 낮았다. 이는 앞의 케플란-마이어 분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성별이나 인적자본 수준을 통제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이 높은 계층이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본 수준이 미취업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보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 가능성이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노력에서는 첫 일자리를 얻기 전 자격증이 있는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일자리로의 이행 가능성이 각각 1.38배, 1.36배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⁵⁾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 일자리로의 이행 가능성이 각각 17.5%, 4.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준비 노력은 미취업 탈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교육수준과 부모의 학력은 첫 일자리로의 이행을 늦출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졸 혹은 전문대 이상 대졸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이행기간을 분석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이규용·

5) 여기서 교육수준과 취업준비노력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구소득의 간접효과를 보여준다. 소득계층별로 교육수준, 취업준비 노력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첫 일자리 취업 시점의 교육수준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준비노력은 소득분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김용현, 2003; 김안국·신동준, 2007; 천영민, 2012).

<표 8> 첫 일자리 이행기간 추정결과: 미취업탈출률의 소득계층별 차이

	B	표준오차	Exp(β)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054	.127	.947
3분위	-.040	.136	.961
4분위	-.252#	.149	.777
5분위	-.331*	.158	.718
성별 남성	-.192*	.091	.825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132	.128	1.141
대졸	.314**	.115	1.369
자격증 있음	.322***	.091	1.380
직업훈련경험 있음	.304**	.113	1.355
해외연수경험 있음	.122	.158	1.130
부모교육수준	-.043**	.016	.958
한부모가구	.188	.124	1.207
형제, 자매의 수	.010	.051	1.010
-2logL		-2956.867	
Wald Chi-Square		79.61***	
N		684(Event=509, Censored=175)	

주 : 표준오차는 Robust S.E임.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청년층의 교육수준 상향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대학 및 4년제 대졸자만을 대상으로 대학수준을 전문대, 비수도권 사립대, 비수도권 국공립대, 수도권 국공립대 및 사립대로 유형화한 변수를 투입해 추가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계층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했으며, 대학수준 변수는 수도권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국공립대 및 사립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 비해 미취업탈출률이 37.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소득계층의 경우 고졸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졸자를 제외할 경우, 이로 인한 선택편의로 인해 가구소득 분위에 따른 미취업탈출률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

다. 한편 이는 가구소득이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위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하위소득계층 청년이 졸업 후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⁶⁾

나. 고용불안정

2012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고용상태(비취업, 비정규직, 정규직)와 이직횟수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우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고용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프로빗 모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개인의 일자리 선택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정도 역시 개인의 선호와 주어진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비정규직이더라도 전문직 비정규직과 사무직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경우에는 가구소득수준이나 인적자본과 비정규직 여부의 선형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음으로 이직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직횟수는 졸업 및 중퇴 경험 이후 2012년 현 시점까지의 이직횟수를 의미하며, 이직횟수 분포를 확인한 결과 0~2회의 값을 갖는 사례가 전체의 84% 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자격증과 졸업 후 현재까지의 기간 변수였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이직횟수가 감소하며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교육수준, 성별, 직업훈련 경험, 해외연수 모두 이직횟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는 일자리 이동이 청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보다는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일자리 이동이 빈번한 청년층의 노동 특성과 더불어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수요가 비정규직을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6)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해 소득계층이 대학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고졸자를 포함할 경우 소득5분위가 고졸보다는 수도권 사립대 및 국공립대에 진학할 odds는 소득1분위의 3.95 배로 월등히 높았으며, 대졸자로 한정할 경우에도 소득5분위가 전문대졸에 비해 수도권 사립대 및 국공립대에 진학할 odds 역시 소득1분위의 3.37배로 나타났다.

7) 대졸자를 대상으로 대학수준 변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격증의 영향은 사라지고, 남성인 경우 이직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적자본을 반영하는 대학수준 변수와 취업준비정도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남재량·김세용(2013).⁸⁾

<표 9> 졸업 후 이직횟수의 소득계층별 차이

	B	표준오차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210	.132
3분위	.092	.148
4분위	.114	.160
5분위	.161	.198
성별 남성	-.144	.105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015	.209
대졸	.080	.251
자격증 있음	-.328***	.092
직업훈련경험 있음	.190	.131
해외연수경험 있음	-.104	.266
부모교육수준	.014	.018
한부모가구	.132	.117
형제, 자매의 수	-.071	.067
졸업 후 현재까지 기간	.015***	.003
상수	-.584	.424
R^2	0.091	
N	763	

주 : 표준오차는 Robust S.E임.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다. 임금수준

2012년 현재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금수준의 가구소득계층별

- 8) 한편, 일자리 이동에 있어서는 단순한 일자리 이동 횟수보다는 산업 간, 직업 간 이동 등 경력 변동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청년층의 빈번한 직장이동이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경력일치(career match)의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이병희, 2002). 청년기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생애 노동경력을 구축하는 시기이므로 계량적 수치보다는 일자리 이동의 전체적인 과정과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Neal, 1999).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헤크만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해 로그임금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 최하위계층인 소득1분위에 비해 소득상위계층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4분위의 임금은 소득1분위에 비해 12.9% 높았고, 소득5분위는 22.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소득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청소년기 경제적 어려움 혹은 아동빈곤이 성인기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Duncan et al, 2010; 변금선, 2013).⁹⁾ 가구소득계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을 통한 매개효과(간접효과)와 교육수준을 통제한 뒤의 직접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Sobel-Goodman Mediation Test를 이용해 가구소득, 교육수준(교육연수), 임금수준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교육수준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효과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⁰⁾ <표 10>의 결과는 이러한 간접효과를 제외한 직접효과만을 나타내므로 가구소득계층의 영향은 과소추정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

한편, 남성은 여성에 비해 8.9%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 9) 일반적으로 임금추정모형에는 회사규모, 산업, 직종 등의 노동시장 특성 변수를 포함시킨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임금 자체의 순수한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소득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기본모형에 해당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금수준 모형에 산업, 직종, 기업의 규모 변수를 투입해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계층 4분위와 5분위의 회귀계수는 각각 .095와 .225로 기본모형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한편, 추가로 투입한 노동시장 특성 변수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져 있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과 관련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기계에 비해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의 임금이 더 높았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비해 중소기업은 9.9%, 대기업은 17.3%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범주형 변수를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방법인 KHB-method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분석의 간명성을 위해 연속변수를 이용해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음을 밝힌다. 한편, 임금수준에 대한 가구소득계층의 총효과(교육수준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표본선택모형 분석결과)는 4분위는 15.6%, 5분위는 28.2%로 나타났다.
- 11) 가구소득계층에 따라 교육수준과 취업준비노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형에 상호작용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소득분위와 교육수준, 취업준비노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임금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청년층의 임금 결정요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이병희, 2002; 이규용·김용현, 2003; 박성재·반정호, 2007). 취업준비 노력에 있어서는 해외연수 경험만이 제한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 임금수준이 12.4% 더 높았으며, 이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하지만 직업훈련과 자격증은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임금수준 및 저임금근로 여부의 소득계층별 차이

	로그임금 헤크만표본선택모형		저임금근로 헤크만프로빗모형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2단계 (OLS, Probit)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056	.048	-.084	.131
3분위	.048	.054	-.074	.146
4분위	.129*	.055	-.307*	.148
5분위	.227***	.056	-.506**	.157
성별 남성	.089**	.034	-.347***	.094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150**	.043	-.397**	.118
대졸	.204***	.047	-.797***	.128
자격증 있음	-.020	.037	.092	.099
직업훈련경험 있음	-.016	.040	-.091	.109
해외연수경험 있음	.124*	.061	-.501**	.173
현일자리 지속기간	.003***	.001	-.012***	.002
상수	-.502***	.074	.934***	.234
람다 (λ)	-.076	.096	.230	.316
-2logL	-		-1132.143	
Wald Chi-Square	66.40***		86.37***	
Censored Obs	290		290	
N	1,140		1,140	

주 1)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2) 2단계 결과만 제시함. 1단계 취업결정 프로빗모형에는 2단계에 투입한 변수 외에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거주지역, 현재 배우자유무, 현재 가구소득(본인근로소득제외), 졸업 혹은 중퇴 이후 현재까지 기간, 고3시점 가족배경변수를 투입하였음.

다음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를 할 확률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수준 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1분위에 비해 소득4분위와 소득5분위인 경우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임금근로 가능성이 낮았다. 취업준비 노력에 있어서도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다른 변수를 평균이나 동일한 집단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의 단위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4분위 집단은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5.6% 낮고 소득5분위 집단은 9.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면 저임금근로 가능성이 9.4% 낮아지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18.8%로 저임금근로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해외연수 경험은 저임금근로 가능성을 11.4%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졸 청년과 대졸 청년이 놓이는 노동시장의 조건은 이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고졸자와 대졸자를 나누어 임금수준 및 저임금근로 모형을 분석하였다. 임금수준모형에서는 가구소득계층이 고졸자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대졸자의 경우에는 4분위와 5분위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참조). 다수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이 고졸자에 집중 분포해 소득계층의 영향이 감소한 것일 수 있다. 대졸자의 경우 대학수준에 따른 임금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계층의 영향은 유의미했다. 저임금근로모형에서는 고졸자의 경우 가구소득계층의 영향은 4분위만 유의했고, 대졸자의 경우에는 가구소득계층과 대학수준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특히 소득계층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전문대졸업자에 비해 비수도권 국립대 졸업자나 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졸업자는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이용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가 소득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구소득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혹은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청소년기 가구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 노동시장 성과 변수를 적용해 검증하였다. 고3시점 가구소득은 교육수준이나 취업준비노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일자리 이행이나 임금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구소득의 영향이 성인초기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청년층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가 특정 소득계층 청년에 가중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원가구의 소득계층이 최상위계층인 경우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길고 미취업탈출 확률이 낮았다. 이는 원가구 혹은 부모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이 자녀의 인적자본을 약화시켜 취업이라는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적자본이론과 다른 결과이다(Becker & Thomes, 1986; Corcoran et al., 1992). 높은 실업률과 고학력화로 인해 취업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충분한 일자리 탐색 및 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낮은 소득수준은 미취업탈출률을 높이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적정한 성과를 획득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낮은 소득계층에 속했던 청년들이 일자리 획득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2012년 현재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를 한 청년을 대상으로 로그임금과 저임금근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 높은 소득계층에 속한 경우 임금수준이 높고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원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성인기에 획득하는 노동

시장 성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행을 경험하는 시기의 낮은 소득이 성인으로서의 경제적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구 소득계층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해외연수 경험이 임금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성과 수준의 불리함이 특정 인적자본의 획득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득 최하위층과 소득 최상위층의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최하위층의 경우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과정을 고려한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등학교-대학교-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과정을 고려해 대학교 진학 이후나 졸업 이후의 인적자본 향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기부터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프로그램과 상위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하며, 특히 최하위소득계층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집중서비스를 마련해 원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취업준비 노력인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은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짧게 만들지만 임금수준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은 교육수준과 해외연수 경험이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는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자격증 및 기술취득과 고용보험의 취업상담 및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자격증과 직업훈련 중심의 접근이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취업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에 있어서 기술습득 중심이 맞는 방향인지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취업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제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 청년들이 마주하는 노동시장 상황에서 대졸자와 전문대졸자,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분명하고 이후의 노동경로가 단절되었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를 선택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선발이론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학력이나 대학서열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고용,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의 노동

시장 성과는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더불어 개인의 교육수준, 취업준비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교육, 고용, 복지를 통합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고용정책의 연계는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복지정책과의 연계는 근로연계정책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투자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조건부 급여 및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자료의 특성상 표본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최종 조사시점은 2012년으로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가 약 27세(만25세)가 되는 시점이다. 청년층의 잦은 일자리 이동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동시장 성과 변수는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취업과 결혼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청년층의 연령이 30대 중반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을 포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고용불안정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청년층 노동행태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년층 일자리 이동의 다양한 유형과 요인을 반영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득계층은 고등학교 3학년 한 시점에 측정된 가구소득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이후 조사기간 동안에는 소득계층의 계층 간 이동이 크지 않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잠정적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첫 일자리의 이행, 고용불안정, 임금 수준으로 다면적으로 측정하여,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가 가구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민경·류지영(2011). 「대학졸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제6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 발표자료(미간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수정(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3호, 49~72쪽.
- 김안국·신동준(2007). 「노동시장: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2호, 125~147쪽, 한국산업노동학회.
- 김위정·김왕배(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권 제6호, 1~36쪽, 한국사회학회.
- 남재량·김세용(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천수(2009).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2권 제1호, 117~139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2014). 「최근 청년층 의중임금과 실제 임금 결정 요인 연구」, 제9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미간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금선(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3호, 257~280쪽, 한국사회복지학회.
- _____(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0권 제4호, 345~373쪽,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성재민·정성미(2012). 『2012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성효용·김민경(2003).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65호, 117~148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주엽·홍서연(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47~74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취약 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규용·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2호, 69~93쪽,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1~18쪽,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1). 『청년 고용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제17권 제1호, 71~94쪽, 한국산업노동학회.
- 이상은(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2호, 53~76쪽, 한국사회복지학회.
- 임병인·김성태·김명규(2012).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결정요인 분석』,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회 발표자료(미간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재식(2002). 『청년층 실업과 정책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제5권 제1호, 1~9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미나·임영식(2010).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관련 변인에 대한 경로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135~152쪽, 한국진로교육학회.
- 정지선·이수정·신정철(2011).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3호, 53~78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우현(1995). 『청년층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실업확률의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18권 제1호, 107~128쪽, 한국노동경제학회.
- 채창균·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89~107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천영민(2012). 『대졸자의 첫 일자리 이행실태 및 영향요인』, 『고용과 직업연구』, 제6권 제2호, 1~26쪽, 한국고용정보원.
- 최지은·홍기석(2011).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분석: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권, 143~163쪽, 한국사회보장학회.
- 황여정·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고용직업능력개발연

구』, 제11권 제2호, 1~23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Becker, G. S., & Thomes, N.(1986). "Human capital & Rise &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4 No.3, pp. 1~39.
- Corcoran, M., Gordon, R., Laren, D., & Solon, G., (1992). "The association between men's economic status and their family and community origin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7 No.4, pp. 575~601.
- Danziger, S., & Ratner, D.(2010). "Labor market outcome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Vol.20 No.1, pp. 133~158.
- Duncan, G. J., & Brooks-Gunn, J.(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 J., Ziol-Guest, K. M., & Kalill, A.(2010). "Early-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Vol.81 No.1, pp. 306~325.
- Furstenberg, F. F., Rumbaut, R. G., & Settersten, R. A. (2005).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emerging themes and new directions", in Settersten R. A. Jr., Furstenberg, F. F., & Rumbaut, R. A.(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IL: Univ. Chicago Press.
- Hill, M. S., & Duncan, G. J.(1987). "Parental family income and the socioeconomic attainment of children", *Social Science Research*, Vol.16, pp. 39~73.
- Neal, D.(1998). *The complexity of job mobility among young men* (No. w666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Rosenbaum, J. E., Kariya, T., Settersten, R., & Maier, T. (1990). "Market and network theories of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work: Their application to industrialized socie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16, pp. 263~299.
-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6, pp. 667~692.

Abstract

The Labor Market Outcomes in Young Adulthood by Income Class

Byun Geumsun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differences among labor market achievements during young adulthood (ages about 27) by their income class at the age of 17.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using survival analysis and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young adults who were in the highest income class had longer period of school to work transition and higher wages compared to the lowest income class. Second, young adult who had a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or a certification had more probability to get a first job after being graduated or dropped out of school. Third, young adult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or had an overseas training experience had higher wag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young adult policies have to concentrate on welfare services for the job ability of young adults who have been grown up in poor families as well as on improving educational attainment.

Key words : KEEP, Young Adulthood, Labor Market Outcomes, Labor Market Transition

<부록> 임금수준 및 저임금근로의 소득계층별 차이

	임금수준				저임금근로			
	고졸자		대졸자		고졸자		대졸자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B	표준 오차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045	.104	.081	.055	.069	.255	-.153	.159
3분위	-.044	.118	.105#	.061	.035	.292	-.139	.177
4분위	.107	.127	.125*	.061	-.588*	.312	-.279	.174
5분위	.207	.146	.223***	.062	-.323	.346	-.425*	.184
성별 남성	.190*	.083	.056	.038	-.598**	.215	-.330**	.110
대학수준 (전문대졸)								
비수도권 사립대			-.029	.051			-.023	.160
비수도권 국립대			.021	.061			-.378*	.174
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099#	.056			-.826**	.179
자격증 있음	.061	.077	-.053	.041			.174	.122
직업훈련경험 있음	-.064	.094	-.003	.043	-.111	.187	-.111	.131
해외연수경험 있음	.297	.208	.112#	.061	.108	.227	-.512**	.197
현일자리 지속기간	.004**	.001	.001	.001	-.357***	.510	-.009**	.003
상수	-.656***	.129	-.238**	.069	-.015	.004	.324	.256
람다(λ)	.254	.154	-.043	.089	1.158	.379	.477	.436
Wald Chi-Square	20.51*		31.64**		28.10***		50.76***	
Censored Obs	85		193		85		193	
N	306		787		306		787	

주 : 표준오차는 Robust S.E임.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